

장애아동의 부모양육태도가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혜연**

요 약

본 연구는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장애형제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배경과 장애형제 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비장애형제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의 차이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부모양육태도가 형제가 지각하고 있는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 결과,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 성취-비성취 영역이 자아존중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여부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과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낮은 기대감이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또한 여자형제보다는 남자형제가, 개입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수록 자아존중감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시절에 장애형제로 인한 경험들이 자아존중감을 지각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장애형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기 특성에 맞춘 부모자녀관계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으로서의 비장애형제가 겪는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양육태도의 바른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는 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비장애형제 특성에 맞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지닌 대상 선정과 비장애형제의 특성에 맞춰 개발한 척도가 이용된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 장애아동, 부모양육태도, 비장애형제, 자아존중감

논문제출일 : 2015. 4. 15

최종심사일 : 2015. 5. 10

게재확정일 : 2015. 5. 26

* 본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Hye-Yeon Le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00 Chungpa-ro 47gil, Yongsan Gu, Seoul, 140-742, Korea, E-mail: ms86@sm.ac.kr

I. 서론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는 가족 집단에서 이루어지며 가족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중 형제관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다. 형제 관계는 동생이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되어 형제 중 한 명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그러는 동안 형제는 서로에게 놀이 친구와 공부 친구가 되고 교사 및 학습자의 역할을 하는 등, 서로 보호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된다. 한편으로는 때때로 적이 되거나 경쟁자가 됨으로서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유영주, 1984).

형제 중의 한 사람의 장애로 인한 무력감은 장애가 없는 형제자매에게 다소간의 영향을 주게 되고(McKeever, 1983) 비장애 형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형제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둘 간의 관계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 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장애형제를 돌보아주거나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일반 형제관계와 비교해 볼 때 상호 작용의 양과 질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신혜용, 2002). 비장애 형제는 어떤 면에서는 부모 이상으로 장애형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때 비장애 형제에게 미치는 심리적 부담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비장애형제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되어 왔다. 장애아동 형제를 가진 비장애형제와 일반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연구가 주된 연구주제였으며(정은순, 1992; 김귀자, 2003; 이연주, 2007),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많았다(전혜인, 1997; 김혜정, 2004; 한은주, 2011; 이미은, 2010;). 그러나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을 다룬 연구들은 서로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비장애 형제들은 낮은 사람들이 장애형제를 응시하는 것이나 또래들의 질문에 당혹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들은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와 성인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Turnbull, 1986).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청소년기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송연옥·안권순, 2012) 학교 부적응이나 비행, 낮은 학업성취 등 여러 개인·사회적인 문제들에 노출되기도 한다(윤미숙, 2000).

물론 비장애형제들이 장애형제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형

제가 있음으로 인해 장애로 인한 차이를 수용하고 배려심을 키우는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그 예로 정은순(1992)의 연구에서는 비장애형제들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는 장애형제에 비해 자신들의 능력이 높음에 대한 지각과 장애형제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비장애형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자아존중감은 타인들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여 발달을 하는데 청소년들은 특히 부모가 거절한다고 느낄 때 우울증과 낮은 자아존중감에 빠지게 되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증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Joan Robertson & Ronald Simons). 부모의 야단과 칭찬, 격려와 같은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비장애형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시기 비장애형제로 대상을 한정하여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된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로는 정신지체아동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태도에 대한 지각(정은순, 1992)과 비장애형제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오정희, 2007)가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도 특정 장애를 가진 비장애형제로 대상이 국한되거나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 보다는 장애형제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의 연구대상을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춰져왔다(방미경, 2007). 또한 연구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한 표집의 어려움 때문에 서로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연령의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가족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던 비장애형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비장애형제들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부모양육태도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장애아동의 부모양육태도가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14개 특수학교에 소속된 장애아동의 비장애형제(14세-19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교의 교사와 담당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조건에 부합하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가정 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으로 발송한 후 다시 학교를 통해 회수 하였다. 설문은 비장애형제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부모양육태도와 비장애형제 태도에 대한 설문과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구성되었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02부를 최종 회수하였고, 이 가운데 연구대상 조건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09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 양육태도 측정도구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Schaefer의 양육태도 2개차원에 선행 연구를 토대로 2개 차원을 보정하여 4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차원에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제작한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질문지를 토대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임선화(1987)가 4개의 하위영역에 각 10문항씩 40문항으로 재편성한 것을 기본적인 척도로 구성하되 반복되는 질문내용이나 선행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제외한 총 17문항을 사용하였다. 4개의 차원은 애정-적대, 자율, 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등으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양극화 시켰다.

본 검사 척도 신뢰도는 Chronbach $\alpha=.929$ 으로 각 문항의 점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2) 청소년 자아존중감 측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양원경(1999)이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을 사용한 것을 연구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이해와 의미전달을 돕기 위해 연구자가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25개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요소로는 운동능력,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신체용모, 행동품행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7$ 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기초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양육태도가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변인	빈도수(명)	빈도(%)
성별	남자	103	49.3
	여자	106	50.7
	합계	209	100.0
연령	14	40	19.1
	15	39	18.7
	16	27	12.9
	17	32	15.3
	18	40	19.1
	19	31	14.8
	합계	209	100.0
형제 순위	손위	118	56.5
	손아래	91	43.5
	합계	209	100.0
연령차	2년이하	97	46.4
	3년이상	104	49.8
	합계	201	96.2
	미응답	8	3.8
장애등급	1급	165	78.9
	2급	26	12.4
	3급이하	17	8.1
	합계	208	99.5
	결측값	1	.5
장애년수	10년미만	22	10.5
	10-15년 미만	75	35.9
	15년 이상	110	52.6
	합계	207	99.0
	미응답	2	1.0
가구소득	150 미만	18	8.6
	150-350 미만	69	33.0
	350-550 미만	64	30.6
	550 이상	47	22.5
	합계	198	94.7
	미응답	11	5.3
부_최종학력	고졸이하	55	26.3
	초대졸/대학중퇴	13	6.2
	대졸	117	56.0
	대학원졸	23	11.0
	합계	208	99.5
	미응답	1	.5
모_최종학력	고졸이하	95	45.5
	초대졸/대학중퇴	22	10.5
	대졸	85	40.7
	대학원졸	7	3.3
	합계	209	100.0

2.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어머니 집단의 성취, 합리 양육태도와 운동능력, 신체용모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모두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 집단의 애정차원 양육태도와 행동품행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406, $p<0.01$).

모든 회귀분석 결과에서 Durbin-Watson은 2에 가까운 수치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연구단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애정차원_부	1												
2. 애정차원_모	.476*	1											
3. 자율차원_부	.657*	.346**	1										
4. 자율차원_모	.303*	.655**	.485**	1									
5. 성취차원_부	.617**	.275**	.697**	.282**	1								
6. 성취차원_모	.275**	.583**	.327**	.545**	.515**	1							
7. 합리차원_부	.729**	.381**	.668**	.298**	.652**	.314**	1						
8. 합리차원_모	.340**	.695**	.330**	.629**	.310**	.565**	.555**	1					
9. 학업능력	.353**	.387**	.300**	.327**	.283**	.210**	.296**	.311**	1				
10. 사회적수용도	.335**	.385**	.302**	.351**	.327**	.352**	.340**	.360**	.432**	1			
11. 운동능력	.237*	.147*	.284**	.242**	.215**	.117	.213**	.116	.228**	.428**	1		
12. 신체용모	.297**	.172*	.209**	.149*	.175*	.059	.220**	.129	.334**	.311**	.418**	1	
13. 행동품행	.266**	.406**	.218**	.246**	.195**	.196**	.262**	.340**	.402**	.346**	.085	.148*	1

*.p<0.05 **.p<0.01

1) 부모양육태도가 비장애형제 자아존중감 전체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집단의 양육태도 성취-비성취 영역($t=-2.094$)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자아존중감 전체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중재프로그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순위는 어머니 집단의 성취-비성취 양육태도, 중재프로그램, 성별,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4.969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89$ 로, 38.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137로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부모양육 태도가 비장애형제 자아존중감 전체에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SE	β	t	p	공차한계
자아 존중감 전체	상수	.472		5.717	.000	
	부					
	애정-적대	.070	.147	1.336	.183	.294
	자율-통제	.079	.073	.659	.511	.289
	성취-비성취	.082	.130	1.172	.243	.289
	합리-비합리	.082	-.008	-.058	.953	.215
	모					
	애정-적대	.090	.198	1.763	.080	.281
	자율-통제	.078	.137	1.296	.197	.316
	성취-비성취	.083	-.201	-2.094	.038*	.384
	합리-비합리	.078	.099	.826	.410	.248
	성별	.066	.163	2.588	.010*	.896
	연령	.019	-.159	-2.448	.015*	.843
	출생순위	.065	.055	.889	.375	.939
	연령차	.022	.003	.043	.966	.862
	장애등급	.059	-.096	-1.462	.145	.822
	가구소득	.024	.058	.741	.460	.589
	부_최종학력	.046	-.117	-1.298	.196	.435
	모_최종학력	.043	.060	.691	.490	.476
	중재프로그램	.070	.187	2.810	.006**	.806
	장애(정신지체)	.087	.028	.341	.733	.541
	장애(자폐장애)	.105	-.119	-1.563	.120	.618
	장애(발달장애)	.108	-.063	-.835	.405	.626
	장애(의사소통)	.248	-.003	-.049	.961	.794
	장애(학습장애)	.339	.007	.102	.919	.840

$R=.623$, $R^2=.389$, 수정된 $R^2=.310$,
 $F=4.969$, $p=.000$, Durbin-Watson=2.137

*. $p<0.05$ **. $p<0.01$

2) 부모양육 태도가 학업능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집단의 애정-적대, 성취-비성취 영역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자아존중감 학업 능력 영역에 각각 정(+),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가구소득, 중재프로그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순위는 어머니 집단의 애정-적대 양육태도, 성취-비성취 양육태도, 가구 소득, 중재프로그램,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3.94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35$ 으로, 3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054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부모양육 태도가 학업능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SE	β	t	p	공차한계
자아 존중감 전체	상수	.632		2.239	.026	
	부					
	애정-적대	.094	.037	.326	.744	.294
	자율-통제	.105	.012	.107	.915	.289
	성취-비성취	.110	.145	1.250	.213	.289
	합리-비합리	.110	-.087	-.649	.517	.215
	모					
	애정-적대	.121	.280	2.388	.018*	.281
	자율-통제	.105	.134	1.214	.226	.316
	성취-비성취	.111	-.273	-2.716	.007**	.384
	합리-비합리	.104	.109	.874	.383	.248
	성별	.089	.131	1.990	.048*	.896
	연령	.026	-.014	-.201	.841	.843
	출생순위	.087	.025	.384	.702	.939
	연령차	.029	.111	1.663	.098	.862
	장애등급	.079	-.046	-.668	.505	.822
	가구소득	.032	.211	2.599	.010*	.589
	부_최종학력	.061	-.083	-.880	.380	.435
	모_최종학력	.058	.176	1.951	.053	.476
	중재프로그램	.093	.206	2.978	.003**	.806
	장애(정신지체)	.116	-.038	-.448	.655	.541
	장애(자폐장애)	.140	-.041	-.518	.605	.618
	장애(발달장애)	.145	-.071	-.909	.365	.626
	장애(의사소통)	.332	-.004	-.062	.951	.794
	장애(학습장애)	.454	-.018	-.271	.786	.840

$R=.579$, $R^2=.335$, 수정된 $R^2=.250$,

$F=3.941$, $p=.000$, Durbin-Watson=2.054

*. $p<0.05$ **. $p<0.01$

3) 부모양육태도가 사회적수용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 태도가 사회적 수용도 전체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수용도를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3.583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314$ 로, 31.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089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부모양육 태도가 사회적수용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SE	β	t	p	공차한계	
자아 존중감 전체	상수	.646		4.267	.000		
	부	애정-적대	.096	.067	.580	.563	.294
		자율-통제	.108	.024	.208	.836	.289
		성취-비성취	.113	.071	.607	.545	.289
		합리-비합리	.113	.077	.568	.571	.215
	모	애정-적대	.123	.111	.933	.352	.281
		자율-통제	.107	.107	.953	.342	.316
		성취-비성취	.113	.033	.328	.743	.384
		합리-비합리	.106	.087	.690	.491	.248
	성별	.090	.069	1.035	.302	.896	
	연령	.026	-.174	-2.530	.012*	.843	
	출생순위	.089	.093	1.426	.156	.939	
	연령차	.030	.025	.364	.716	.862	
	장애등급	.081	-.095	-1.362	.175	.822	
	가구소득	.033	.015	.181	.856	.589	
	부_최종학력	.062	-.163	-1.706	.090	.435	
	모_최종학력	.059	.135	1.474	.142	.476	
	중재프로그램	.096	.121	1.717	.088	.806	
	장애(정신지체)	.119	.159	1.850	.066	.541	
	장애(자폐장애)	.144	.078	.970	.333	.618	
	장애(발달장애)	.148	.065	.815	.416	.626	
	장애(의사소통)	.339	.000	-.006	.995	.794	
	장애(학습장애)	.464	.042	.615	.539	.840	

$R=.561$, $R^2=.314$, 수정된 $R^2=.227$,
 $F=3.583$, $p=.000$, Durbin-Watson=2.089

*. $p<0.05$ **. $p<0.01$

4) 부모양육태도가 운동능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 태도가 운동능력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장애유형(자폐장애)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순위는 장애유형(자폐장애), 연령순이며,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2.72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58$ 로, 25.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721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부모양육 태도가 운동능력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SE	β	t	p	공차한계
자아 존중감 전체	상수	1.005		3.687	.000	
	부					
	애정-적대	.150	.146	1.208	.229	.294
	자율-통제	.168	.105	.863	.389	.289
	성취-비성취	.176	.098	.802	.423	.289
	합리-비합리	.175	.011	.081	.935	.215
	모					
	애정-적대	.192	-.048	-.386	.700	.281
	자율-통제	.166	.206	1.768	.079	.316
	성취-비성취	.177	-.100	-.939	.349	.384
	합리-비합리	.166	-.036	-.275	.784	.248
	성별	.141	.094	1.360	.176	.896
	연령	.041	-.177	-2.467	.015*	.843
	출생순위	.139	.088	1.297	.196	.939
	연령차	.047	-.106	-1.499	.136	.862
	장애등급	.126	-.007	-.100	.921	.822
자아 존중감 부	가구소득	.051	-.140	-1.636	.104	.589
	부_최종학력	.097	.006	.060	.952	.435
	모_최종학력	.092	-.047	-.495	.621	.476
	중재프로그램	.149	.086	1.182	.239	.806
	장애(정신지체)	.185	-.041	-.460	.646	.541
	장애(자폐장애)	.223	-.219	-2.619	.010*	.618
	장애(발달장애)	.230	-.103	-1.239	.217	.626
	장애(의사소통)	.528	-.016	-.214	.831	.794
	장애(학습장애)	.722	.029	.398	.691	.840

$R=.508$, $R^2=.258$, 수정된 $R^2=.163$,
 $F=2.721$, $p=.000$, Durbin-Watson=2.226

*.p<0.05 **.p<0.01

5) 부모양육태도가 신체용모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 태도가 신체용모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연령의 경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순위는 성별, 연령 순이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2$ 에서 2.251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24$ 로, 22.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298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부모양육 태도가 신체용모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SE	β	t	p	공차한계
신체 용모	상수	.859		4.580	.000	
	부					
	애정-적대	.128	.220	1.774	.078	.294
	자율-통제	.143	-.010	-.081	.936	.289
	성취-비성취	.150	.032	.259	.796	.289
	합리-비합리	.150	-.009	-.064	.949	.215
	모					
	애정-적대	.164	.052	.409	.683	.281
	자율-통제	.142	.107	.899	.370	.316
	성취-비성취	.151	-.167	-1.536	.126	.384
	합리-비합리	.141	.022	.160	.873	.248
	성별	.120	.222	3.128	.002**	.896
	연령	.035	-.202	-2.766	.006**	.843
	출생순위	.118	-.004	-.060	.952	.939
	연령차	.040	.029	.397	.692	.862
	장애등급	.108	-.112	-1.516	.131	.822
	가구소득	.044	.107	1.227	.222	.589
	부_최종학력	.083	-.014	-.142	.888	.435
	모_최종학력	.079	-.136	-1.398	.164	.476
	중재프로그램	.127	.071	.948	.345	.806
	장애(정신지체)	.158	-.013	-.145	.885	.541
	장애(자폐장애)	.191	-.102	-1.191	.235	.618
	장애(발달장애)	.197	-.038	-.453	.651	.626
	장애(의사소통)	.451	.025	.327	.744	.794
	장애(학습장애)	.617	.009	.120	.904	.840

$R=.473$, $R^2=.224$, 수정된 $R^2=.124$,
 $F=2.251$, $p=.002$, Durbin-Watson=2.298

*. $p<0.05$ **. $p<0.01$

6) 부모양육태도가 행동품행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집단의 애정-적대 영역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자아존중감 전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통제변수 중에서는 중재프로그램이 정(+)의 영향을, 아버지 집단의 최종학력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순위는 어머니의 애정-적대 양육태도, 아버지 집단의 최종학력, 중재프로그램 참여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3.285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96$ 으로, 29.6%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Durbin-Watson은 2.055로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부모양육 태도가 행동품행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SE	β	t	p	공차한계
행동 품행	상수	.603		2.790	.006	
	부 애정-적대	.090	-.033	-.277	.782	.294
	부 자율-통제	.101	.109	.920	.359	.289
	부 성취-비성취	.105	.110	.920	.359	.289
	부 합리-비합리	.105	-.028	-.201	.841	.215
	모 애정-적대	.115	.418	3.459	.001**	.281
	모 자율-통제	.100	-.165	-1.447	.150	.316
	모 성취-비성취	.106	-.201	-1.946	.053	.384
	모 합리-비합리	.099	.232	1.808	.072	.248
	성별	.084	.014	.212	.833	.896
	연령	.025	.097	1.392	.166	.843
	출생순위	.083	-.035	-.528	.598	.939
	연령차	.028	-.002	-.030	.976	.862
	장애등급	.076	-.087	-1.239	.217	.822
	가구소득	.031	.080	.962	.337	.589
	부_최종학력	.058	-.216	-2.229	.027*	.435
	모_최종학력	.055	.176	1.900	.059	.476
	중재프로그램	.089	.194	2.720	.007**	.806
	장애(정신지체)	.111	.069	.797	.426	.541
	장애(자폐장애)	.134	-.045	-.550	.583	.618
	장애(발달장애)	.138	-.039	-.481	.631	.626
	장애(의사소통)	.317	-.016	-.229	.820	.794
	장애(학습장애)	.433	-.056	-.809	.420	.840

R=.544, $R^2=.296$, 수정된 $R^2=.206$,
F=3.285, $p=.000$, Durbin-Watson=2.055

*. $p<0.05$ **.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장애형제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장애형제의 전체 자아존중감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성취-비성취 영역이 자아존중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중재프로그램의 참여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이 남성이거나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자아존중감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결과는 정은순(1992), 권진옥(2001), 이연주(2006), 박미경(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어린 시절에 장애형제로 인한 경험들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영역별 자아존중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업능력 자아존중감에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영역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취-비성취적영역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통제변수로는 가구 소득, 중재프로그램, 성별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별이 여자형제보다는 남자형제의 자아존중감이, 월 소득이 높은 가구의 비장애 형제가, 그리고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장애형제가 참여하지 않은 형제보다 학업능력 자아존중감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행동품행 영역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대 영역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중재프로그램 참여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통제변수 중에서는 중재프로그램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재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자아존중감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들 중 의미 있는 결과들을 종합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최진희, 1993; 오세연, 1992). 예를 들면, 양금아(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장애아동의 사회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희(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장애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 성취-비성취 영역이 자아존중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여부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과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낮은 기대감이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존중감 학업능력영역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영역, 성취-비성취적영역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용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일 경우, 그리고 높은 기대와 많은 격려를 하는 어머니일 경우에 자녀 스스로가 자신이 학교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규리(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부모에 의해 비장애 형제에게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지나친 기대심리’를 꼽았으며, 김명선(1987)의 연구에서는 비장애형제들이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으로 자기비하, 수치심, 죄책감, 부담감, 분노, 장애형제에 대한 걱정이 부모의 높은 기대와 유의미한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셋째, 자아존중감 행동품행 영역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어머니의 애정-적대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형제 자신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여부에 어머니의 애정과 관심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송현정(1998)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가정의 형제는 부모가 자신보다 형제를 더 사랑한다고 지각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방미경(2007)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해 비장애 형제가 차별적인 양육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안혜정(2003)과 이영진(2009)은 비장애 형제에게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통제적이라는 공통된 연구결과를 내놓았는데, 본 연구 결과와 더불어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결과가 일치한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장애아동 가족연구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비장애형제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해 접근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과 관련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중점을 두고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양육태도를 발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은순(1992)등의 연구는 비장애형제가 연령에 따

라 자아존중감을 다르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따라서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각 시기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을 연구하고 결과를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13-19세의 연령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청소년시기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처럼 비장애형제들의 중재 프로그램 참여여부는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관 및 관련기관에서 비장애형제의 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부모자녀관계 개선 등에 대한 프로그램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의 중재프로그램이 장애형제를 이해하고 장애아동가정의 화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장애형제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춘 부모자녀관계개선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비장애형제가 겪는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양육태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비장애형제 청소년 20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수와 지역분포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형제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표집한 만큼 장애형제 관련 변인 중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이 균등하게 표집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장애형제 변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비장애형제 특성에 맞춘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척도의 개발 또한 시급하다. 추후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지닌 대상 선정과 비장애형제의 특성에 맞춰 개발한 척도가 이용된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혜란(2009). 장애아가족의 특성과 비장애형제자매 지원에 관한 질적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권진옥(2001). 장애아동 형제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 금미현(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경진(1994). 자폐아 형제의 우울과 사회적응.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귀자(2003). 자폐성 장애아의 비장애 형제자매와 일반학생의 자아개념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아동심리 석사 논문.
- 김기정(1985).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명선(1987). 정신지체자들의 형제들이 갖게되는 사회적, 심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미순(1997). 지체장애아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민정(2010). 장애형제가 있는 비장애형제가 경험하는 적응의 심리적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집단성격과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정(2004). 장애형제지원프로그램이 비장애형제의 자아개념과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규리(2012). 장애아동 부모의 비장애자녀 양육현상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규향(2000). 자폐성장장애 형제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와 비장애 형제의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미옥, 1993; 최진희, 1993 최진희(199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지적능력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미경(2007). 장애아 어머니 양육행동이 비장애 형제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서진실(2008). 장애형제가 있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개방성, 장애에 대한 지각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성희미(2011). 모의 창의성 훈련이 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 송연옥 · 안권순(2012). “독서교육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한국 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 송현정(1998).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장애인 형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신혜정·강위영(2001). 들봄 강위영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 자폐성 장애아 중재 연구 ; 자폐아동의 형제관계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Vol.17. No.1.381-412.
- 안혜정(2003). 장애아동의 일반형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단국대학교 석사 논문.
- 양금아(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장애아동의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 정신지체 아동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 양복인(2000). 자폐인의 생활주기에 따른 행동특성·가족의 요구와 대처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기선(1965), 「부모-자녀관계 진단검사」, (서울: 코리안테스팅 센터):
- 오성심 · 이중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 『행동과학 연구노트』 11(1),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오세연(199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동덕여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정희(2007). 장애형제관련 스트레스 요인, 비장애형제의 자아개념수준, 부모의 양육태도가 형제관계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 윤미숙(2000).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5.
- 이광자(1998).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은(2010). 연극치료가 장애아동을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스트레스,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 이민호(2003). 발달장애아 가족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지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순미(2010). 장애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비장애형제의 심리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 이연주(2007). 장애아 형제자매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 비교. 나사렛대학교 석사논문.
- 이영진(2009). 장애 자녀 어머니의 양육태도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운경(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아동학회지. 26(3).43-59.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령(2011). 지적장애인의 비장애형제자매의 성장기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전혜인(1997).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를 위한 형제지원프로그램이 비장애형제의 장애형제를 대하는 행동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서희(2009).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 감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원식(1968). 「인간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은순(1992). 정신지체아 정상형제자매의 자아존중감과 부모태도에 대한 지각.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최중옥(1980). 정신박약아에 대한 이해와 태도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진희(199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지적능력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순옥외(1997). 아동양육론. 서울: 수학사.
- 한은주(2011). 집단모래상자놀이 프로그램이 장애아동을 둔 비장애형제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Burden, R. L. "Measuring the Effects of Stress on the Mothers of Handicapped Infants: Must Depression Always Follow".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ement. 1980.111-125
- Fotheringham, J. b. & Creal. D., "Handicapped Children andHandicapped Families",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Vol.20.1974. 355-373.
- G.Colletti & S. L. Harris, "Behavior Modification in the house: Modifier, Parent as Observers". Jour of Abnormal Child Sibling as Behavior Psychology. vol.5 No.1(1977), pp21~30.
- Gath,A.,"The Mental Health of Soblings of Congenitally Abnormal Children", J.Child Psycjol. Psychat. Vol.13.1972,211-218.
- Graliker.B.V., Fishler, K., & Koch, R. "Teaanage Reaction to a Mentally Retard Sibling",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Vol.66. 1962, 833-843.
- Grossmann, G.(1972). Brother and Sisters of Retarded Children: An Expolartory Study New York: Szracuse University Press.
- Hall, A.b., Sibling of Handicapped Children: A Study of Self Concept, Frustration and Attitudes. Doctoral dissertration Notheastern Univ., 1988.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arvey, D. H. P., & Greenway, A. P. (1984). The self-concept of physically handicapped children and their non-handicapped sibling: An enpirical interven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5, 273-283.
- Lobato, D.J. (1990). Brothers, sisters, and special needs: Information and activities for helping young siblings of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es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ltimore, MD: Paul Brookes Publishing Co.
- Mates, T . E.(1982). Which siblings of autistic Children are at greater risk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and/ or personality difficulties?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Society for AutisticChildren, Omaha, NE.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Trevino, F., "Sibling of Handicapped Children: Identifying those at risk: Social Case 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Vol. 60. 1979, 488-493.

Abstract

The Effects on Self-esteem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Siblings without Disabilities in Adolescence

Lee, Hye-Ye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the self-esteem of non-handicapped teenagers with handicapped siblings.

This study researched the correlation of social demographic background and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ffected by the factor of handicapped offspring. It also researched the correlation of the self-esteem of non-handicapped siblings and social demographic background. Furthermore, the effect of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the self-esteem of the non-handicapped siblings was also studied.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affects the self-esteem of non-handicapped siblings. Especially, the mothers' attitude in achievement/non-achievement areas had negative effects on the whole self-esteem of the non-handicapped children. This conclusion means that the indifference of the parents, the underestimation of the non-handicapped children's ability and low expectation could have negative impacts on building up the self-esteem of non-handicapped siblings. Brothers tend to build more positive self-esteem than sisters after participation in intervene programs. Finally, the lower their age is, the better chance there is for children to have positive self-esteem. Therefore, experiences, related to the handicapped siblings, have negative effects on building up self-esteem.

Thus, development of programs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for families with handicapped children is needed, especially to help non-handicapped adolescent siblings build up better self-esteem. Also, development of programs which can suggest proper attitudes and roles of the parents is needed, so that the par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and emotions of non-handicapped teenage children better.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proper measuring standards for child-rearing attitudes and self-este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handicapped siblings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follow-up studies based on more various social-demographic groups, using more developed measurement standards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non-handicapped siblings, are required.

Key Words: Handicapped Child,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Non-handicapped Siblings
Self-esteem

*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Child Welfare &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